

전통 보자기를 활용한 스카프 디자인 개발

- 조각보와 자수보를 중심으로 -

김혜은·정성혜*

동의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교수*

요약

본 연구는 우리만의 전통의 미를 바탕으로 한 문화상품 제작을 목표로 한 디자인 개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조선의 규방 문화와 미의식을 잘 나타내는 조각보와 자수보를 모티브로 가벼운 친 한 쪽에 우리의 미를 잘 담을 수 있고 패션 창작의 마지막 연출 포인트로 활용성이 높아 외국인 선물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스카프를 제작하였다. 조각보와 자수보의 이론적 연구를 통해 구성, 형태, 색감을 고찰하고 그 상징성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디자인 개발 방법으로는 조각보는 원형 그대로의 이미지를 살리거나 재배치하는 방법과 자수보는 여성적인 모티브인 수화문, 수목문수보를 중심으로 문양을 최대한 살려 그대로 응용 재배치하거나, 여러 수보들의 개체를 분리, 재조합하여 새로운 수 문양을 만드는 방법, 마지막으로 모티브를 그래픽화하여 새로운 기하학적 문양으로 재탄생 시키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디자인을 연구개발 하였다. 제품 개발을 통해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각보, 자수보는 소박한 장식미, 민예미, 자연성, 본능적 심미성, 경제성, 일상품의 예술화, 기복적 특징 등을 지니며 조각보의 경우 선의 미학, 모던한 형태미의 특징을 가진다. 둘째, 조각보를 응용한 스카프 개발로 19C 조각보 3점을 통해 조각보 패턴을 원형 그대로 사용하거나, 재배치, 그리고 색상을 계절에 맞게 변형해 총 6점의 스카프를 개발하였다. 셋째, 자수보에서 수화문 4점을 선정하여 1점은 문양을 수정한 후 크기 변화, 불규칙 배치, 농도 조절을 통한 원근감을 이용해 스카프 2점을 개발하였고, 2점의 수화문, 수군문에 있는 문양들을 분리하여 재조합하고 색상을 변형해 새로운 형태의 수보를 만든 후 배치를 달리한 스카프 7점과 1점의 화목문 모티브를 컴퓨터 일러스트 도구를 사용하여 그래픽화하고 다양한 색감을 주어 1점의 스카프를 개발하였다. 모든 제품은 2~3회 이상 재프린트한 후 모델 착용을 통해 상품성 평가 후 최종 16 작품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전통예술, 특히 무명의 규방 문화예술이 현대적 문화 상품으로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해 재조명해 보였다. 특히 문양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문양을 변형, 재조합하거나 그래픽적으로 변형한 경우 전통의 요소는 가져오면서 색다른 문양 개발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 이를 더욱 활용해 개발하면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새로운 문화 상품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자수보, 조각보, 패션문화상품, 스카프 디자인, 글로벌 패션 브랜드

본 논문은 인하대학교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정성혜, shjung@inha.ac.kr

접수일: 2019년 10월 3일, 수정논문접수일: 2019년 12월 4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9일

I. 서론

최근 한류(K-pop, K-drama, K-beauty, K-fashion)가 세계적으로 급부상 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어, 이에 한국 문화의 인기와 위상에 부합하는 문화 콘텐츠와 상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런 한류의 세계화는 그 이미지에 맞는 문화 상품 혹은 패션 상품 개발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의 문화와 전통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에 근거하기보다는 장식적이고 외형적인 미를 부각시켜 정통성을 상실한 서비스와 상품이 나오면서 우리 문화의 격을 손상시키며 대중적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문화상품 중 고급스러운 품격과 우리의 전통가치의 미를 지니면서 고부가가치의 패션성을 갖춘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 창출을 위한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전통문화와 예술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여러 디자인 연구가 있었지만 실용화되어 판매로 이어지거나 글로벌 패션 상품으로 인지도를 갖고 있는 브랜드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급문화 상품 개발을 목표로 조각보, 자수보의 아름다움을 이용한 스카프의 디자인 개발을 연구하고 정리한 실기 제작 논문이다. 아이টে็ม으로는 패션에 멋을 더하는 동시에 부피가 가볍고 다양한 패션 액세서리로서의 연출이 가능하기도 하며 한 폭의 디자인에 우리의 미를 가장 전하기 쉬운 스카프로 선정하였고, 디자인 모티브는 전통 보자기 중, 조선 여성 문화의 진수인 규방의 미의식과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는 조각보와 자수보를 사용하였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조선 시대를 중심으로 한 왕실 문화는 다수 소개되었으나, 조선의 규방 문화의 소박하면서도 뛰어난 심미성을 가진 아름다움은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 관광 상품을 통해 조선 시대 규방 문화를 알릴 기회

가 될 수 있다. 조각보는 원단 자투리를 이어서 만들어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한국 규방 여인의 소박한 정신을 잘 보여줄 수 있고, 자수는 궁중 의상에서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지만, 자수 보자기의 사용은 양가 계층에서만 사용되고 궁중용은 발견되지 않아 규방 문화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정성 들여 바느질한 조각보와 풍요, 행복, 장수 등 사용하는 사람의 행운을 기원하는 자수보는 전통의 미의식을 잘 표출해 주는 동시에 수화문의 꽃, 식물 문양은 여성적인 미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 이를 모티브로 사용해 스카프 디자인을 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조각보와 자수보에 나타난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색감, 구성 등은 20세기 대표적 공간 분할 추상 화가인 피에트 몬드리안(Pieter Cornelis Mondriaan), 파울 클레(Paul Klee)와 같은 추상예술의 미를 19C의 규방 예술에서 볼 수 있어 우리 선조들의 우수성을 볼 수 있으며 글로벌 대중성을 얻기에 적합하여 선정되었다. 조각보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문화 상품 개발 연구(Chang 2010; Cho & Park, 2013; Choi & Kim, 2018; Oh & Chang, 2015)도 있으나, 실질적인 판매로 이어져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발전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무분별한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복제가 시장에서 범람하는 가운데 체계적인 우리 문화의 미에 대한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지니며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체계적인 디자인 개발 연구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한국적 감성을 지닌 패션 문화 상품 개발에 도움이 되며 판매로 이어져 국익 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들을 통하여 조선 시대의 조각보와 자수보를 중심으로 한 보자기에 대한 이론과 역사, 관련 연구 논문들을 조사하였고 2016~17년에 본태박물관, 강릉, 서울 등의 자수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던 전시품, 도록 및 화보를 수집하여 200여 장의 사진을 스캔한 후, 선명도, 현대적 디자인 개발 가능성 유무

를 통해 3인의 패션 전공자가 20장 이상의 이미지를 선정하였다. 이후 어도비 포토샵(Adobe Photoshop)을 통해 보정, 수정하기도 하고, 자수보의 경우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Adobe Illustrator)를 통해 자수를 해체 분리하여 모티브화 하기도 하였다. 디자인 개발 방법으로는 첫째, 조각보의 경우 조각보의 면 분할과 색감을 최대한으로 살리며 DTP(Digital Textile Printing, 디지털 날염) 제작 방법에 맞도록 컴퓨터로 선을 정리하고 색상을 계절감과 문양 이미지와 어울리도록 변형하였다. 둘째, 자수보의 경우 수화문 자수의 화문양의 모티브가 잘 보존되고 아름다운 것을 그대로 살리고 크기를 달리해 재배치하는 법, 셋째, 여러 개의 자수보의 수화문을 따서 재조합하고 변형하여 새로운 수화문을 디자인하는 법, 넷째, 수화문 중 하나의 모티브를 컴퓨터 일러스트 도구를 통해 그래픽화하여 기하학적 무늬의 그래픽 스카프로 변형시키는 법 등으로 디자인 개발하였다. 모든 디자인은 2~3가지 색상 계열로 발전시키며, 컴퓨터 화면 안에서 구성된 디자인이 DTP로 실사 프린트될 때 색감이나 구성 비율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하여 세 번 이상 재프린트하여 봉제 후 최종 작품을 완성하였다. 이후 모든 개발된 제품은 모델 착용이나 디스플레이 촬영을 통해 3인의 패션 전공자가 상품의 가치를 논의해 최종 제품을 선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전통 보자기: 조각보, 자수보

보자기는 “물건을 싸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네모지게 만든 작은 천”이다(Naver dictionary, n.d.a). 보자기의 용도는 가방의 역할을 하는 싸개의 용도뿐 아니라, 덮개, 가리개, 깔개, 보관함에서 더 나아가 스카프의 용도로도 사용되고, 상처 보호대

등으로도 쓰일 수 있는 실용적인 물건이다. 보자기는 작은 받침보부터 이불보까지 사이즈나 용도가 다양하다. 또한 하나의 보자기가 다목적 용도로도 사용되며, 보자기 네 귀에 끈을 달거나 중앙에 꼭지를 달아 실용성을 더하기도 한다. 현대에는 혼례, 선물 포장, 장식용 하는 포장지의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특히 보자기는 조선 시대 규방 문화의 하나로 사각형 천에 자수를 하거나, 헝겊 자투리를 이용해 보자기를 제작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부녀자의 미의식뿐만 아니라 시대 문화적 특징을 볼 수 있다. 보자기는 복을 싸둔다는 의미에서 ‘福’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보자기 자체가 복 개념과 관계가 있고, 더 나아가 보자기를 만들기 위해 지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것은 복을 불러들인다고 일컬어져 보자기는 기원의 목적으로 규방 문화에서 다수 제작되었다(Huh, 2004).

1) 조각보

조각보는 옷 자투리 중 작은 것을 사용해 겹보나 홀보를 만든다. 작은 조각을 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원단보다 더 튼튼해서 물건을 담았을 때 늘 어지지 않아 일반 원단보 보다 더 실용적이다. 조각보는 주로 마직물, 건직물로 만들어졌는데, 남은 천을 활용했기 때문에 사용된 원단에 따라 신분이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조각보는 조선 시대 민보의 대표 양식으로 궁보 중 조각보는 발견되지 않았고, 현존하는 전통 조각보는 조선 시대 후기 이후 만들어진 것이다(Huh, 2004).

조각보는 패물, 바느질 도구를 깔거나 덮는 받침, 덮개보, 노리개, 패물을 담기 위한 노리개보, 밥상의 밥그릇, 음식 보온을 위해 숨을 넣기도 한 상보, 옷감보, 이불보 등의 실용적 용도로 사용되었다. 실용적 목적 외에도 크게 바느질 연습용, 기원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조각보는 완성까지 다양한 바느질 연습을 할 수 있기 때

문에 조선 여인이 출가 전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느질 연습을 위해 많이 활용되었다. 또한 조각보를 만드는 것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투리 천을 잇는 것을 수명이나 장수, 행복을 기원하는 것과 연결하기도 한다. 특히 오래되고 사용한 조각천의 수명을 연장해 새로운 용도로 쓰여 새 생명을 불어일으킨다는 것과 이렇게 만든 조각보를 만들어 입거나 사용함으로써, 조각보의 연장된 수명이 입는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믿음에서 조각보를 짓기도 하였다(Kim, 1998). 강원도 원주 민속 중에는 할아버지 옷을 뜯거나 이야기 배내옷을 만들면 아기가 장수한다는 믿음으로 조각보 형태로 원단을 만들어 옷을 지어 입혔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1994).

조각보는 자투리라는 재료 상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기하학적 구성의 세련미, 색채의 조화가 예술 작품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고, 동서양, 시대를 뛰어넘어 제품의 모티브가 될 정도로 조형미가 뛰어나다(Yang, 2014). 독일의 린덴 국립민속학 박물관(Linden-Museums für Völkerkunde) 관장인 피터 툴레(Peter Thiele)는 「직물 회화」라는 글에서 몬드리안의 『컴포지션(Composition)』(1922), 『청색 컴포지션』(1917)이 이미 100년 전에 만들어진 한국의 보자기를 연상하게 한다고 하였다(Huh, 2006).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Hermes)는 2019년 봄, 여름 신상품으로 한국의 조각보를 활용한 ‘보

자기의 예술(L’Art Du Bojagi)’이라는 이름의 조각의 삼각형, 사각형을 불규칙하게 배치한 모양을 그래픽화한 스카프를 출시하였다(Figure 1). 샤넬(Chanel) 역시 2016 크루즈 컬렉션에서 다양한 한국적 모티브를 선보였는데, 그중 하나가 조각보를 활용해 원단의 패턴으로 사용해 조선 시대에 사용한 모티브를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최근 컬렉션에 응용한 것이다(Figure 2). 조각보는 자투리의 색상, 형태가 각각 다양하고, 의례용이 아니라 실용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적인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 여인들이 자유롭게 감각을 펼칠 수 있어 조선 여인의 미적인 감각을 살펴볼 수 있다.

패턴 구성과 형태는 <Table 1>과 같이 삼각형, 사각형, 원형의 규칙적 반복 형태, 또는 자유롭게 배치해 리듬감, 균형, 조화를 주는 불규칙 형태로 나뉜다. 조각보는 양 끝이 대칭을 이루는 것이 많고, 문양, 색상을 반복해 리듬감을 느낄 수 있고 “조화와 대비”를 통해 “생동감”, “활기”를 느낄 수 있다(Kim et al, 2015, p. 67). 사각형 형태가 반복된 조각보는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반복되는 형태로 같은 크기가 반복되기도 하고, 다른 크기가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사각형 형태가 작품을 배치해 구성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조각보 중 가장 많이 제작되었다. 삼각형 형태가 이어진 조각보는 사선으로 반복적으로 배치한 것이다. 원형 조각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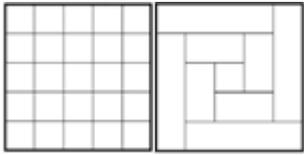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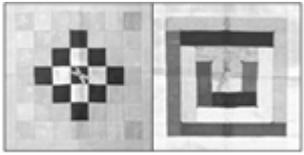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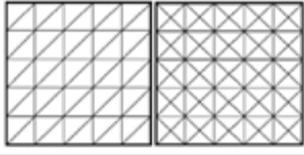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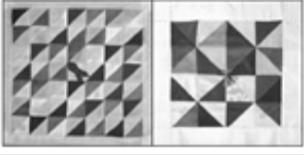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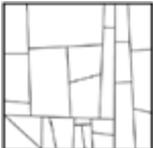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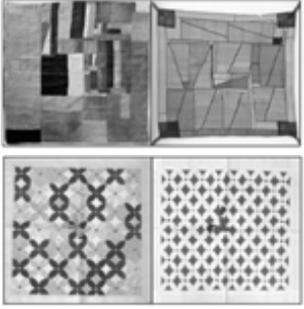


Figure 1. 에르메스의 조각보 스카프.
From Yoon. (2019).
<https://www.insight.co.kr>



Figure 2. 샤넬의 조각보 패턴 의상.
From KOCCA. (2015).
<https://loreancontent.kr>

Table 1. 조각보의 형태별 분류.

형태	패턴	이미지
사각형		
삼각형		
원형		
불규칙형		 -한국전통보자기, 허동화, 국립민속박물관

From Kim et al. (2015). p. 65.

원형 형태로 조각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일정하게 배치한 것으로 주로 사용되는 문양은 여의주 문형이다. 원형은 사각형, 삼각형, 불규칙형 조각보의 직선적인 선과는 달리 원형을 위한 곡선이 사용되어 더욱 기하학적이며, 곡선 바느질을 위해 직선보다 뛰어난 바느질 능력이 필요하다. 불규칙 형태가 이어진 조각보는 자투리 원단의 자유로운 형태를 직선으로 정리해 자유롭게 배치한 것으로 불규칙한 원단이 일부 반복되는 형태를 취해 불규칙과 규칙이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색채는 자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상이나 침구에서 주로 사용된 음양오행의 상징 색채체계인

동서남북 중앙의 청, 백, 적, 흑, 황색의 오정색이 주된 색상으로 구성되고, 여기에 파스텔 계열이 보조색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자투리는 새 원단의 자투리뿐만 아니라 사용한 원단의 자투리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원단의 사용이나 세탁에 의해 변형된 색상이 함께 한다. 현존하는 조각보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제작된 것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약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원색의 오정색이 빛이 바랜 느낌이 강하다. 주로 사용된 배색은 유사색 배색, 보색 배색이다(Yang, 2014). 유사색은 유사한 톤의 색상에 농담의 차이를 두고 흰색과 무채색에 가까운 소라색 등이 조화를 이루

어 간결하면서도 세련되었다. 보색 조화는 규칙적 배치에 함께 구성해 눈에 띄도록 해, 사각형, 원형 배치 조각보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정한 문양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런 형태와 색채의 다양성에서 창의적 예술성, 생명력을 볼 수 있다.

2) 자수보

자수는 “옷감이나 형질 따위에 여러 가지의 색실로 그림, 글자, 무늬 따위를 수놓는 일. 또는 그 수(繡)”를 의미한다(Naver dictionary, n.d.b). 보자기에 색실로 수놓은 자수보는 조각보와 같이 민보 위주이다(Chung, 2007). 다양하고 화려한 자수가 대량의 의례복이나 의례품에 전문적으로 놓여진 궁중의 자수와 달리 일반 조선 여인이 만든 자수보는 소박하고 투박하지만 수를 놓은 정성이 돋보이고, 비전문가의 솜씨로 정성껏 만들어 순박하고 소박한 형태미를 지닌다(Huh, 2004).

자수보를 비롯한 전통 자수는 감상용, 장식용이 아닌 실용성에 근거한 생활용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수를 놓은 천은 외풍을 막기 위한 병풍이나 밥상보, 노리개, 베개보, 수저집, 주머니 등 생활 속에 함께한다. 자수는 한국만의 전통이 아닌 전세계적인 전통예술이다. 그러나 대다수가 장식이나 의례를 위한 것으로 생활용품으로 실생활에 자수를 쓰는 곳은 많지 않다. 한국의 자수보는 생활용품이므로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감상용으로 장식되기 위해 광택을 가진 푼사를 사용하는 중국 자수와는 달리 푼사를 사용해 둔탁한 색감을 가지지만 입체감을 더할 수 있다. 실로 면을 채우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수고가 들어 생활용품이지만 일상적 용도 보다는 정성을 모아 복을 비는 형태의 특별한 용도로 더 사용되었다. 자수보는 이런 의미에서 혼례 등 길사에만 쓰였다. 특히 지니거나 사용하는 자에게 복이 전달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신부의 어머니가 딸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 자수를 놓아 사주보나 폐백 때 사용되거

나, 패물을 보관하는 패물보로 많이 이용되었다. 자수에 사용된 문양은 <Table 2>와 같다. 문양은 제작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복을 담은 의미를 지니고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진 식물 문양이 많고, 이중 많이 사용된 모티브인 나무는 한국인에게 신성시되거나, 꽃, 열매는 다산을 상징해 복을 기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동물 문양 역시 봉황이나 사슴 문양의 남성적인 이미지는 찾기 어렵다(Chung, 2007). 기하학, 길상 문양 등도 사용되었으나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건강,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더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하나의 문양이 다른 문양과 같이 수 놓여 조화를 이루는 형태를 취한다. <Figure 3>의 기하학 문양은 주로 테두리나 위아래 경계를 나눌 때 많이 사용되었다. 테두리의 형태에 따라 문양의 배치를 달리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더한다. <Figure 4>의 수복(壽福), 모란, 장미, 나비, 국화 자수는 부귀, 부부 화합, 장수를 염원하였다(Chung, 2007). 하나의 문양만 사용되기보다는 문자, 이미지가 같이 배치되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한다. <Figure 5>는 학, 나무, 대나무, 장미, 돌을 수놓아 장수를 기원하였고, 자유롭게 배치하기도 하고, 대칭으로 배치해 균형감을 더하기도 한다. <Figure 6>의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봉황 문양은 그 화려한 색상과 아름다움으로 상상의 동물 중에서 그 사용을 많이 볼 수 있다. 자수 문양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식물 문양인 수화문이 사용된 <Figure 7>의 19세기 화문수보를 살펴보면, 가운데 원 안에 주문양인 국화, 매화와 그 밖으로 나비와 줄기 등의 부문양을 배치하고 보자기 가장자리 사방에 꽃을 수놓아 다산, 화목을 기원하였다. <Figure 8>은 사계절 농사 모습을 수놓은 인물 문양이고, 이는 작은 생활 소품보다는 병풍보 등 크기도 크고, 감상하기 유용한 곳에 수놓은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9>는 물결을 수놓은 자연 문양으로 구름, 산수, 물결 등의 자연 문양은 주제를 받쳐주는 부주제로 다른 문양들과 더불어 표현되었다.

Table 2. 자수 문양의 종류.

문양	종류	이미지	문양	종류	이미지
기하학 문양	만(卍)자 문양, 아(亞)자 문양 등	 Figure 3. 만자 문양. (19C). From Lee. (2012). p. 14.	길상 문양	수(壽), 복(福), 부귀영화(富貴榮華), 만수무강(萬壽無疆), 수복강녕(壽福康寧) 등	 Figure 4. 화문수보 (경대보). (n.d.). From Lee. (2012). p. 298.
동물 문양	실존 거북이, 사슴, 학, 새, 박쥐, 물고기 등	 Figure 5. 학문수보 (헛대보). (n.d.). From Lee. (2012). p. 297.	식물 문양	국화, 꽃, 난초, 매화, 대나무, 모란, 복숭아, 석류, 불로초(영지), 소나무, 석류, 연화 등	 Figure 7. 화문수보 (19C). From Huh. (1988). p. 198.
	상상 봉황, 용, 원앙 등	 Figure 6. 봉황문. (n.d.). From Lee. (2012). p. 16.			
인물 문양	구운몽도, 백동자도, 경작도 등의 등장 인물	 Figure 8. 경작도. (19C). From Lee. (2012). p. 18.	자연 문양	구름, 물결, 산수 등	 Figure 9. 물결 문양. (19C). From Lee.(2012). p. 19.

자수보에는 음양오행 사상에서 근거한 청, 백, 적, 흑, 황색의 오정색과 이를 혼합한 오간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궁수의 경우 채도와 명도차를 크지 않게 해 세련되고 격조 있는 배색이 주가 된 반면, 민간 자수보의 경우 보색이나 대비 명도, 채도 차가 큰 과감한 조합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스카프 개발의 주요 모티브로 복을 기원하는 것을 뛰어넘어 여성적이면서도 세련되어 현대 스카프의 디자인 모티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화

문의 경우 오방색 중에서도 적, 청과 같이 색상 차이가 큰 보색대비를 통해 화려함을 더했다.

3) 보자기(조각보, 자수보)의 미의식

한국의 미의식에 대해 학자들이 정리한 것을 살펴보면, 1929년 「조선미술사(Geschichte der Koreanischen Kunst)」를 쓴 안드레 에카르트(Andre Eckardt)는 한국의 미를 “단순성”, “자연스러움”, “과욕이 없는 소박성”, “중용”, “미에 대한 자연감이 뛰어난 고전성”

을 들어, 단순하지만 멋있지 않고 자연스럽고 소박한 아름다운 특징을 언급하였다(Kam, 2019, p. 5). 일본의 민예연구가인 야나기 무네요시(Yanagi Muneyoshi)는 「조선의 예술」에서 한국 민예품을 “자연성”, “무작위성”을 그 대표적인 특징으로 분석하였다(Choi, 2010, p. 485). 이는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으로 특히 서민들이 만들고 사용하는 민예품을 중심으로 아름다움을 분석한 것이 인상적이다. 한국 미술사 및 미학의 효시인 고유섭은 한국의 미를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 민예적인 것, 비정제성, 비균제성, 절박한 맛과 둔후한 맛과 순진한 맛, 선적 섬약미와 단색조의 적조미, 적오와 명랑, 무관심성”이라 하였다(Kam, 2019, p. 6). 즉, 화려함을 떠나 일부러 꾸미지 않고 눈에 띄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상반된 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민예품을 떠나 미술 작품 전반에 걸쳐 자연적, 민예적, 그리고 소박한 의도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소박한 민예미를 한국 전통 미술의 특징으로 정리하였다. Kam (2019)은 한국의 미에 대한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한국적 미의식을 자연 순응미, 소박미, 민예미, 절제미로 분류하였다. 연구자들의 한국의 미 분석은 개인차가 있으나, 어휘의 차이를 염두에 두면 공통적으로 자연미, 소박(순수)미, 민예미의 특징을 들고 있다.

조각보와 자수보에 대한 이론 연구와 한국인의 미의식의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조각보, 자수보의 미적 특징을 뽑으면 다음과 같은 공통된 미의식을 갖는다. 첫째, 소박한 장식미를 들 수 있다. 꾸미지 않은 듯이 보이면서도 다양한 색상을 배치해 꾸며져 있으며, 보색 대비도 과감하게 사용하였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부녀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비정형적이며 신선하다. 이는 두 번째 특징인 민예미와도 연결된다. 여기에는 억지로 꾸미지 않은 무기교의 기교가 있다. 이는 자투리라는 한정된 재료의 모양에 따라 연결하여 결국 사각형의 조각보로 마무리되는 무계획의 계획이 있다. 이에 따라 있는 그대로를 작위적으로 변형하지 않고 아름다

움을 창출해 내는 세 번째 특징인 자연미를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네 번째 특징인 본능적 심미성과 연결된다. 조각보는 삼종지도(三從之道), 여필종부(女必從夫)와 같은 많은 제약이 있던 조선 규방 여인들의 자기표현 수단으로 판단이나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감각을 펼치며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다섯째 특징은 경제성이다. 조각보 옷감의 자투리를 활용해 낡으면 덧대고 기워서 사용해 사용수명이 길어졌다. 자수보의 경우 제작 이유가 복을 기원하거나 소중한 것을 보관하는 용도도 있으나, 왕족이나 귀족이 아닌 이상 무늬가 있는 비단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자수를 통해 무늬를 만들어 꾸며 새로운 원단을 창출해 내는 경제성을 볼 수 있다. 조각보는 현대적 관점으로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의 친환경적 요소를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섯째로, 일상품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일상품의 예술화(예술성)를 꼽을 수 있겠다. 노리개보, 패물보, 예단보 등과 같은 생활용품에 무늬나 자수를 새겨 소박하면서도 담백하지만 뛰어난 형태, 색채미를 지녀 예술적으로 뛰어난 작품을 탄생시켰다. 일곱째로, 물건 제작에 정성을 들여 복을 기원하는 기복적 성격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제작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조각보, 자수보 모두 해당한다. 자수보와는 달리 조각보의 경우에는 특별히 선의 미학을 더할 수 있다. 바느질 선이 선을 이루고, 시집, 특히 마지물의 경우에는 비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집 또한 또 다른 선을 이루어 아름다움을 창출해 내었다. 선으로 만들어낸 디자인은 몬드리안, 끌레를 연상케 하는 모던한 형태미를 가진다.

III. 디자인 개발

패션 스카프는 목을 보호하거나 추위로부터 체온을 보호하는 실용적 목적뿐만 아니라 의복의 분

위기를 더해 스타일링을 완성하는 장식적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각보, 자수보의 문양을 이용한 디자인 개발뿐만 아니라 계절성, 용도에 따른 크기, 소재 등을 달리하여 개발하였다.

제작 방식은 컴퓨터 캐드(CAD) 프로그램으로 조각보, 자수보의 디자인을 변형해 천 위에 프린트하는 DTP 방식을 택하였다. DTP는 디자인부터 프린팅까지 전 공정이 컴퓨터로 진행되어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있어 자유로우며 동시에 기존의 날염 방식을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 DTP는 컴퓨터로 문양 작업을 해 판을 짜지 않아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여 초기 디자인 개발에 용이하다.

스카프의 크기는 정사각형의 경우 90cm x 90cm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70cm부터 140cm까지 다양하다. 직사각 스카프는 55cm의 폭에 160~180cm로 길이는 다양하다(Rhee & Kim, 2010). 또한 55cm x 55cm 사이즈의 뽀뽀 스카프와 6cm x 85cm의 트윌리(twilly)라 불리는 형태의 미니 스카프는 간편하게 목에 장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가방 등에 연결해 스타일을 더해주는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요즘에는 사각형뿐만 아니라 사각형 스카프를 접은 형태의 삼각형 스카프도 다양한 사이즈로 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에 따라 가장 일반적인 크기인 90cm x 90cm, 50cm x 180cm와 요즘 인기 있는 형태인 55cm x 55cm 사이즈의 뽀뽀 스카프를 개발하였다.

스카프의 소재는 본 연구의 목표가 고급스러운 패션 문화상품, VIP 선물용 제품 제작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실크 원단만을 사용하였다. 실크 원단 내에서도 프린트하는 문양에 어울릴 수 있도록 실크 트윌(twill), 새틴 조젯(satin georgette), 메시(mesh), 시폰(chiffon) 등 재질감과 두께, 광택을 달리하여 선택하였다. 사용 패턴은 19세기 조각보, 자수보를 중심으로 조사한 200여 점 중 문양의 크기, 색채, 배치 등이 스카프의 모티브로 활용하기

에 적합한 20여 점을 스캔하여 컴퓨터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도구를 사용해 보정을 거쳐 디자인 작업을 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스카프에 사용된 것은 7점이었다.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된 한국 전통 조각보, 자수보가 지닌 소박한 장식미, 민예미, 자연미, 본능적 심미성의 아름다움을 살리고자 노력하였으며 동시에 스카프를 목이나 어깨에 둘렀을 때 문양이 노출되는 것을 고려해 디자인이 선정되었다.

이를 위해 조각보의 경우 원형을 최소한으로 변형하는 방향으로 시작해 점차 변형의 폭을 키워나갔다. 특히 사각형 스카프에 프린트를 위한 디지털 작업으로 조각보의 선이 삐뚤거나 기울어져 있으면 프린트가 잘못된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최소한의 변형이라도 선을 직선으로 정리하였고 자수보의 경우 패턴의 반복 배치를 위해 일부 패턴은 생략하거나 변형시키기도 하였다.

색상은 현존하는 조각보나 자수보가 오정색을 위주로 사용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의해 빛바래고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고, 투박한 민예미를 지녔기 때문에 색상에 서도 원색을 살리되 다양한 색감의 톤 다룬 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원형에서 느껴오는 구성, 배치, 색감에 집중하여 그 자체로 예술성을 지니면서 패션성이 가미 되도록 노력하였다. 특별한 기념품, 선물을 위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강한 혼례용보와 같은 원본을 사용해 선물 받는 이의 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내포되도록 하였다. 최종 디자인 선정은 3인의 패션 전문가가 연구 배경에서 언급된 한국의 미, 조각보, 자수보의 미가 잘 나타나며 디자인적 가치 높을 뿐만 아니라 평면, 착용 이미지를 통해 상업성을 고려하여 최종 상품을 선정하였다.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7점의 전통 조각보, 자수보 이미지를 활용하여 모두 16점의 스카프 작품을 전개하였다(Table 3-8). 조각보는 가능한 19C 조각

Table 3. 모시옷 조각보를 이용한 스카프 개발.

응용 보자기	작품	배치방법	색상	사이즈, 소재
 <p>Figure 10. 모시옷 조각보. (19C). From Huh. (2014). p. 46.</p>	 <p>Figure 11. 작품 1. Photographed by author. (May 5, 2017)</p>	 <p>Figure 12. 조각보 확장. Photographed by author. (May 5, 2017)</p>		<p>90 × 90cm, 세틴 조켓 실크</p>
	 <p>Figure 13. 작품 2. Photographed by author. (May 5, 2017)</p>			
	 <p>Figure 14. 작품 3. Photographed by author. (May 5, 2017)</p>	 <p>Figure 15. 조각보 확장. Photographed by author. (May 5, 2017)</p>	<p>조각보의 불규칙 패턴 배치 사용, 긴 직사각형 형태에 맞도록 변형</p>	

보의 원형 그대로의 구성미와 색감을 살려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Figure 11>의 ‘작품 1’은 90cm x 90cm 사각 스카프로 19C 모시옷 조각보의 불규칙한 조각이 배치된 원형을 최대한 살려 형태와 색채를 디지털화하는 정리 과정을 거쳤다. 소재는 비단의 은은한 빛을 발하는 세틴 조켓 실크로 사용하였다. <Figure 13>, <Figure 14>의 ‘작품 2, 3’은 정사각형에서 긴 형태로 변형해 50 x 180cm의 스카프로 정사각형에 있던 구성을 긴사각형에 맞도록 재배열하여 디자인하였고, ‘작품 1, 2’가 원형에 충실한 내추럴(natural) 톤의 봄 색이었다면, ‘작품 3’은 여름용 푸른 계열의 진한 톤으로 색상 변화를 주었다. ‘작품 2, 3’의 소재는 조각보 원본에 사용되었던 조직이 성근 모시의 느낌이 나도록 실크 메시 원단을 사용하였고, 이는 특히 ‘작품 3’의

여름용 스카프와 잘 어울린다. 스카프 사진 촬영의 경우 문양에 색상만 차이를 둔 스카프 디자인은 문양 노출이 비슷하기 때문에 모델이 착용한 것을 모두 촬영하지는 않았다.

<Figure 17>의 ‘작품 4’는 중심의 작은 조각이 방사형으로 불규칙하게 점점 커지면서 뻗어 나가는 디자인의 19C 명주 조각보를 재배열한 것으로 방사형 형태가 잘 구사될 수 있는 정사각형의 형태에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긴 직사각형의 형태에 짧은 선의 중심 부분에 작은 문양이 바깥쪽으로 향하면 커지는 형태로 배해 문양을 사용하였으나, 원본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처음엔 실크 트릴 소재로 사각 스카프를 프린트하였으나 색이 지나치게 강렬하여, 50 x 180cm 시폰의 얇은 천으로 프린트하니 보다 은은한 톤으로 변화

Table 4. 명주 조각상보를 이용한 스카프 개발.

응용보자기	작품		배치방법	색상	사이즈, 소재
 <p>Figure 16. 명주 조각상보. (n.d.). From Huh. (2014), p. 59.</p>	 <p>Figure 17. 작품 4. Photographed by author. (August 12, 2018)</p>	 <p>Figure 18. 조각보 착장. Photographed by author. (August 12, 2018)</p>	<p>불규칙 배치로 중심에는 작은 문양이 외곽으로 갈수록 커지는 형태로 배치</p>		<p>50 × 180cm, 실크 시폰</p>

되었으나, 다양한 색들을 조합하다 보니 컴퓨터상의 색과 DPT 상의 색들이 차이가 커서 6회의 재프린트를 거쳐 어렵게 최종본 <Figure 17>이 완성되었다.

<Figure 20>, <Figure 21>의 ‘작품 5’, ‘작품 6’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세모 조각보를 응용한 55 x 55cm의 빠른 스카프로 작은 사이즈에 어울릴 작은 문양의 <Figure 19>를 원본 이미지로 사용하였다. 색상은 핑크색과 흑백색의 콘트라스트가 조화

된 디자인과 블루, 짙은 오렌지색과 모노톤들이 조화된 반복된 색 조합을 사용하지만, 색상이 규칙적으로 반복하지 않고 비규칙적으로 사용해 지루함을 회피하는 동시에 모던함과 세련됨을 더했다. 스카프의 중앙에 브랜드의 사각형 로고를 넣어 로고를 디자인에 포함시켰다. 소재는 사각 스카프에 가장 많이 쓰이는 실크 트위를 사용하였다.

자수보는 자수 사용 비중이 가장 크고 여성적인 매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꽃, 나비 식물 문양을

Table 5. 세모 조각옷보를 이용한 스카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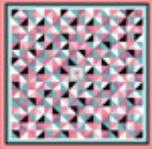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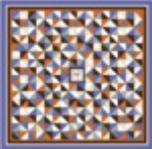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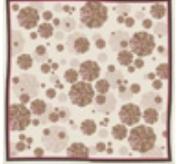
응용보자기	작품		배치방법	색상	사이즈, 소재
 <p>Figure 19. 세모 조각옷보. (n.d.). From Huh. (2014), p. 23.</p>	 <p>Figure 20. 작품 5. Photographed by author. (March 19, 2018)</p>	 <p>Figure 21. 작품 6. Photographed by author. (March 19, 2018)</p>	<p>삼각형 배치를 비규칙적으로 반복하고 3색의 테두리를 넣어 정리</p>		<p>55 × 55cm, 실크 트월</p>
		 <p>Figure 22. 조각보 착장. Photographed by author. (March 19, 2018)</p>			<p>55 × 55cm, 실크 트월</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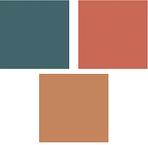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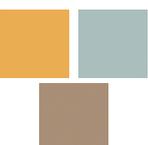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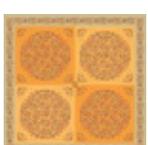
Table 6. 방사문 혼례수보를 이용한 스카프 개발.

응용보자기	작품	배치방법	색상	사이즈, 소재
 <p>Figure 23. 방사문 혼례수보. (19C). From Huh, (1988), p. 37.</p>	 <p>Figure 24. 작품 7. Photographed by author. (March 19, 2018)</p>	 <p>Figure 25. 자수보 착장. Photographed by author. (March 19, 2018)</p>	<p>문양의 일부를 삭제하고 화문 원형을 비규칙적 반복 배치</p> 	<p>90 × 90cm, 실크 새틴 조켓</p>
	 <p>Figure 26. 작품 8. Photographed by author. (March 19, 2018)</p>	 <p>Figure 27. 자수보 착장. Photographed by author. (March 19, 2018)</p>	<p>문양의 일부를 삭제하고 화문 원형을 비규칙적 반복 배치</p> 	<p>55 × 55cm, 실크 새틴 조켓</p>

수놓은 자수보의 수화문을 사용하였다. 자수보를 응용한 스카프는 수보의 모서리 자수를 제거하고 중심의 꽃 모티브를 그대로 살려 문양의 크기를 달리하며 비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재배치하는 법, 수보의 문양들을 분리 재조합, 변형하여 새로운 모티브를 만드는 법, 마지막으로 하나의 모티브를 현대적으로 그래픽화하여 새로운 색감으로 배치하였다. <Figure 24>, <Figure 26>의 ‘작품 7, 8’은 19C에 제작된 방사문 혼례용보의 자수 문양을 원형 그대로 따서 포토샵으로 보정한 뒤, 크기와 투명도를 달리해서 배치한 디자인으로 율동적인 원근감과 현대적 세련미를 주었다. 색상은 원본 그대로 유지하고 규칙성을 두지 않고 크기가 큰 패턴의 주문양과 크기가 작고 흐릿한 부문양을 함께 배치하였다. 90cm 사각 스카프인 ‘작품 7’은 문양의 크기를 크게 하였고, 뽀뽀 스카프라 부르는 55cm 사이즈의 ‘작품 8’은 문양의 수와 크기를 줄여 표현하였다.

<Figure 30>, <Figure 32>, <Figure 33>, <Figure 34>, <Figure 36>, <Figure 38>, <Figure 39>의 7개 스카프는 수군문, 수화문의 모티브들을(Figure 28-29) 따서 포토샵으로 색상과 모티브를 선명하게 재보정 후, 모티브의 일부를 분리 후 혼합하여 배치해 새로운 원형의 수 문양을 만들었다. ‘작품 9’, ‘작품 10’, ‘작품 11’은 문양을 하나의 큰 원형으로 배치를 하였고, ‘작품 12’, ‘작품 13’, ‘작품 14’, ‘작품 15’는 정사각형 스카프에 사방 대칭형으로 4등분하여 원형을 작게 하여 배치하였다. 또한 스카프의 가장자리에 수군문의 모티브들을 분리하여 띠 형태로 배치해 트리밍 장식으로 응용하였다. ‘작품 12’는 블루 하나의 톤이고 ‘작품 13’, ‘작품 14’, ‘작품 15’는 두 가지 톤으로 변화를 주었다. 특히 ‘작품 15’는 다른 디자인들이 봄/여름의 밝고 따뜻한 계열의 색상인데 반해, 가을/겨울용으로 검정 배경에 자수 문양을 넣어 마치 자개처럼 화려하고 차분함과 동시에 세련미를 주었다. 수문

Table 7. 수문군 수보와 수화문 수보를 이용한 스카프 개발.

응용보자기	작품	배치방법	색상	사이즈, 소재	
	 Figure 30. 작품 9. Photographed by author. (March 19, 2018)	 Figure 31. 자수보 착장. Photographed by author. (March 19, 2018)		55 × 55cm, 실크 트월	
 Figure 28. 수문군 수보. (n.d.). From Huh, (1988), p. 200.	 Figure 32. 작품 10. Photographed by author. (March 19, 2018)	가운데 큰 원을 중심으로 문양 반복 배치 후 사방 모서리에 문양 일부 배치, 테두리에 문양 일부를 선적으로 배치		55 × 55cm, 실크 트월	
 Figure 29. 수화문 수보. (n.d.). From Huh, (1988), p. 179.	 Figure 33. 작품 11. Photographed by author. (March 19, 2018)			55 × 55cm, 실크 트월	
	 Figure 34. 작품 12. Photographed by author. (May 5, 2017)	 Figure 35. 자수보 착장. Photographed by author. (May 5, 2017)	위의 작품을 사방 대칭형으로 반복 배치하고 테두리에 문양 일부를 선적으로 배치		90 × 90cm, 실크 트월
	 Figure 36. 작품 13. Photographed by author. (March 19, 2018)	 Figure 37. 자수보 착장. Photographed by author. (March 19, 2018)			90 × 90cm, 실크 트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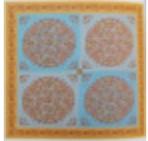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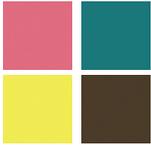
응용보자기	작품	배치방법	색상	사이즈, 소재
	 Figure 38. 작품 14. Photographed by author. (March 19, 2018)			90 x 90cm, 실크 트월 90 x 90cm, 실크 트월
	 Figure 39. 작품 15. Photographed by author. (March 19, 2018)	 Figure 40. 자수보 착장. Photographed by author. (March 19, 2018)		

Table 8. 화목문 수보를 이용한 스카프 개발.

응용보자기	작품	배치방법	색상	사이즈, 소재
 Figure 41. 화목문 수보. (19C). From Huh, (2014), p. 36.	 Figure 42. 작품 16. Photographed by author. (March 19, 2018)	 Figure 43. 자수보 착장. Photographed by author. (March 19, 2018)		55 × 55cm, 실크 트월

군 수보를 변형한 디자인은 소박한 장식미, 민예미의 한국 전통의 미와 색감이 잘 살아나는 제품으로 면세점, 미술관 등 소비자와 판매처에서 선호하여 다양한 색상과 사이즈의 변형 작품들을 개발하였다.

이제까지의 작품 개발은 원형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농도 조절, 그리고 문양을 분리해 재조합한 상태로 문양 자체를 변형하지는 않았지만, <Figure 41>의 화목문수보를 이용한 ‘작품 16’은 수화문을 일러스트레이터 툴을 이용해 문양을 단순화하고

그래픽과 색상을 변형해 원본과는 다른 이미지의 기하학적인 문양의 스카프를 디자인하였다. 문양의 배치는 중앙에서 바깥으로 퍼지는 방사 형태를 사각으로 배치하여 55cm 사각 사이즈의 뽀뽀 스카프를 개발하였다. 갈색 바탕에 핑크, 라임, 블루의 색상들이 화려하게 조화된 그래픽 디자인은 전통을 현대화한 모던한 스카프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 이미지를 활용해 패션성을 가미한 문화 상품을 제작하여 전통문화 상품을 고급화, 패션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의 규방 문화, 미의식을 잘 나타내는 조각보와 자수보를 모티브로 스카프를 제작하였다. 19C 조선의 규방 여인들이 제작한 조각보와 자수보에 나타난 구성과 형태, 색채미는 20C 서구의 몬드리안과 칸딘스키, 클레 등의 추상 예술 거장들의 비구상적 창의성과 풍부한 색감과 견줄 수 있고 에르메스, 샤넬 등의 명품 브랜드의 모티브로 사용될 정도로 예술성을 지니고 있어서 스카프로 연출되었을 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고 동시에 현대 패션과도 잘 어울릴 수 있었다. 먼저 조각보와 자수보의 이론적 연구를 통해 구성과 형태, 색감을 고찰하고 형태와 문양들이 지니는 상징성과 의미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박물관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제작 방식은 시간과 경제성을 고려한 DTP로 제작하여 소비자의 반응과 대량생산에 유동적일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연구 및 제품 개발을 통해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각보, 자수보는 소박한 장식미, 민예미, 자연성, 본능적 심미성, 경제성, 일상품의 예술화, 기복적 특징을 지니며 조각보의 경우 선의 미학, 모던한 형태미를 지녔고, 19C의 자수보의 화려한 구성과 형태미, 색감의 조화는 20C 서구의 현대예술의 미와 견줄 만큼 뛰어나다. 둘째, 조각보를 응용한 스카프 개발은 19C 조각보 3점을 통해, 모시 조각보의 불규칙한 구성과 색감, 질감을 그대로 재현하는 디자인, 삼각형, 불규칙 반복 형태의 형형색색 조각보 패턴을 원형 그대로 사용하거나, 재배치, 그리고 색상을 계절에 맞게 변형해 총 6점의 스카프를 개발하였다. 스카프 사이즈는 90 x 90cm 사각 스카프, 50 x 180cm 롱 스카프, 55 x 55cm 빠른 스카프 등 다양하게 개발하였고, 소

재 역시 고급문화 상품 이미지를 지니기 위해 실크만을 사용하며, 조직은 트윌, 조젯, 메시, 시폰 등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셋째, 자수보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수화문 4점을 이용해 문양을 따서 포토샵으로 재보정하거나 수정한 후 문양의 원형 그대로 살리고 크기를 다양하게 하여, 불규칙한 배열과 농도를 이용해 원근감 주어 현대적 리듬감을 살린 스타일, 2개의 수화문에 있는 문양들을 분리하여 재조합하고 색상을 변형해 새로운 형태의 수보를 만든 후 사각 배치하고 스카프 끝단에 분리된 문양들로 트리밍한 디자인, 마지막으로 화목문 모티브를 컴퓨터 일러스트레이터 도구를 사용하여 현대적으로 그래픽화하고 다양한 색감을 주어 스카프로 개발하였다. 자수 스카프는 모두 명주의 느낌이 드는 실크 트윌을 소재로 90 x 90cm, 55 x 55cm 사이즈의 사각스카프 총 10점을 개발하였다. 컴퓨터로 개발된 모든 스카프는 2-3회 이상의 재프린트 되어 색감과 모티브 사이즈 등이 조정되고, 모델 착용 후 3인의 패션 전문가의 평가 후 선정되었다. 이상과 같이 개발된 총 16점의 스카프는 한국의 전통 보자기에서 묻어나는 색감, 문양, 구성 형태를 지녀서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예술적 창의성과 아름다운 미적 감각을 지녔고 동시에 고급 문화상품으로 개발되어 현재 미술관, 박물관, 공항 면세점 등과 기업의 VIP 선물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전통예술, 특히 무명의 규방 문화예술이 현대적 문화 상품으로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해 재조명해 보았다. 특히 문양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문양을 변형, 재조합하거나 그래픽적으로 변형한 경우 전통의 요소는 가져오면서 색다른 현대적인 기하학적 문양 개발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 이를 더욱 활용해 개발하면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새로운 문화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평면적인 스카프 한 장에서 시작한 문화상품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선조들

의 조형 예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다양한 한류 패션이 글로벌 시장에 우뚝 서기를 기대해본다.

References

- Chang, M. J. (2010). A study on development of fashion culture product utilizing the Korean traditional patchwork: Focusing on the apron.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3(3), 169-181.
- Cho, S. R., & Park, S. K. (2013). A study on the design of everyday objects applying patchwork wrapping cloth (Jogakbo) of Joseon dynasty: Focusing on the small home interior pieces. *Journal of Fashion Design*, 13(4), 1-20.
- Choi, I. S., & Kim E. J. (2018). Development of t-shirt textile design by motifs of traditional Jogakbo and Hangeul.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22(1), 17-27. doi:10.16885/jkctc.2019.03.22.1.17
- Chung, H. J. (2007). A study on patterns expressed of embroidered Pojagi.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0(3), 34-44.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1994). *한국 민속종합조사 보고서 - 산속편 2* [Korean folklore survey report- mountain 2]. Seoul: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Publisher.
- Huh, D. H. (1988). *The wonder cloth*. Seoul: The museum of Korean Embroidery Press.
- Huh, D. H. (2004). *이렇게 예쁜 보자기* [Bojagi's simple elegance]. Seoul: Hyeonamsa.
- Huh, D. H. (2006).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규방문화* [What we really need to know is our woman's living room culture]. Seoul: Hyeonamsa.
- Huh, D. H. (2014). *규방문화의 극치, 보자기* [The height of woman's living room culture, Bojagi]. Seoul: The museum of Korean Embroidery Press.
- Kam, S. J. (2019). An analysis of sustainable fashion design characteristics using Korean image.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25(2), 1-12.
- Kim, H. J., Kim, E. J., & Bae, S. J. (2015). A comparative study on patchwork cloth in the oriental and western designer's collection: Focusing on 2015/16 Chanel Seoul cruise collection and 2016 S/S Liesangbong New York collection. *Journal of Human Ecology*, 25(-), 65-73.
- Kim, S. K. (1998). Sociocultural function and value of Minbo: Korean folk wrapping cloths. *Art History Forum*, 7(-), 141-160.
- KOCCA (2015, May 15). 샤넬, 한국을 담다! 서울에서 열린 2015/16 샤넬 크루즈 컬렉션 [Chanel, contain Korea! 2015/16 Chanel cruise collection held in Seoul].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Retrieved October 12, 2019, from <https://koreancontent.kr/2390>
- Kwon, Y. J., & Lee Y. Y. (2015). Traditional aesthetic characteristics traced in South Korean contemporary fashion practice. *Fashion Practice*, 7(2), 153-174. doi:10.1080/17569370.2015.1045348
- Lee, G. N. (2012). *A study on cultural goods design using in the Joseon dynasty embroidery patterns: Focused on laser cutt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kyeong University, Seoul.
- Naver dictionary. (n.d.a). 보자기 [Bojagi]. *Naver*. Retrieved October 4, 2019, from <https://ko.dict.naver.com/#/entry/koko/2255bd65a8be47168f58b8fa4b3fbb18>
- Naver dictionary. (n.d.b). 자수 [Jasu]. *Naver*. Retrieved October 4, 2019, from <https://ko.dict.naver.com/#/entry/koko/3481f5eaf3314516913b05d0a02f2af0>
- Oh, S. R., & Chang, M. J. (2015). A development a bedclothes of using patchwork and Hangeul II.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Knit Design*, 13(3), 1-12. doi:10.16885/jkctc.2015.09.18.3.45
- Rhee, S. C., & Kim, J. H. (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carf design utilizing traditional patchwork in Korea: Focusing on composition of pattern.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16(1), 230-241.
- Yang, S. H. (2014). Development of traditional Baeja design applied Jogakbo and knot. *Journal of the Korean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6(4), 189-203.
- Yoon, H. Y. (2019, February 17). 한국 시장표 보자기서 영감 받은 '120만원'짜리 에르메스 신상 스카프 [1.2 million won' Hermes new scarf inspired by Korean market]. *Insight*. Retrieved October 11, 2019, from <https://www.insight.co.kr/news/211241>

Scarf design development using traditional Bojagi

- Focused on Jogakbo and Jasubo -

Kim, Hye Eun · Jung, Sung Hye⁺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Dong Eui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is a practical study aimed at making modern cultural fashion products by utilizing traditional beauty. As a result, scarves were produced with the motif of Jogakbo(patchwork wrapping cloth) and Jasubo(embroidery wrapping cloth), which express well about the Joseon culture and aesthetic sense in one piece of cloth as a final point of fashion wearing and frequently used gifts for foreigners. Through theoretical studies of Jogakbo and Jasubo, the composition, form, and color were examined and their symbolism and meaning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product development are as follows. Firstly, Jogakbo and Jasubo have the beauty of simple decoration, folk art, nature (inorganic arts, unplanned planning), instinctual aesthetics (inborn aesthetic sense), economic feasibility, art of daily commodities, mind of cherishing things. They are also characterized by the aesthetics of lines and modern formative aesthetics. Secondl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carf inspired by Jogakbo, three scarves of 19C were used to develop the pattern of the patch as it is, or by rearranging and changing the colors according to the season. Thus, six pieces of scarves were developed. Thirdly, after modifying the size, placement, depth of the pattern of four pieces of most frequently used Jasubo, two scarves were made. New pattern is created by adjusting and mixing two pattern motifs and then seven scarves are produced through changing its placement of pattern and colors. The computerized motifs were developed into a scarf by using computer graphic programs. The study tried to reexamine the possibility and value of Korean traditional arts, especially obscure Korean cultural arts as a modern cultural commodity. In particular, in addition to using patterns as they are, they can be transformed, recombined, or graphically modernized to show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modern patterns while integrating the elements of tradition. If we conduct further development while utilizing these points above, we can create new cultural products by bridging the tradition and the contemporary.

Key words : Jasubo, Jogakbo, cultural fashion product, scarf design, global fashion brand

